東大新聞

發行人 李瑄根
編輯人 鄭允武
主幹 宋赫
編輯部長 李相拳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 交換 ㉗8131~9
本社直通 ㉗8577

每週火曜日發行

25日 學位授與式 거행

博士9、碩士54、學士7백47名 首席卒業 韓始燕(師大 家敎)양등 표창

75학년도 學位授與式이 오는 25일(水) 오전 11시부터 本校대운동장에서 거행된다。學士7、碩士가 배출되는 75학년도 학위수여식에는 李瑄根總長을 비롯, 財團、宗團、同窓會關係人士와學內外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의례주악으로 開式되어 학위수여와 總長式辭順으로 진행된다。

이날 학위수식에서는 韓始燕(사범대 家敎科·이화여고 출) 양등 학사 7백47명, 대학원, 행정대학원및 경영대학원 석사 54명, 행정학원연구과 정 41명, 그리고 박사 5명, 명예박사4명이 영예의 학위를 수령하게 된다。

학위수여에 이어 거행되는 상장수식에는 수석졸업 韓始燕양을 비롯 각단과대학수석졸업생 7명이 總長상을 받게되며 전 총학생회장 尹錫經군을 비롯한 각대학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 總團간부와 특별공로자가공로표창을 받게 된다。

학위수여 및 상장수식에 수석졸업자 각단과대학별 수석졸업자는 상기와 같다。

◇李敏雄박사 ◇金宜洛박사 ◇黃晟起박사
◇野田卯一명박 ◇崔 淸 박사 ◇金熙甲박사
◇金藏衡명박 ◇劉 誠 명박 ◇緖方浩 명박

大學發展 세미나 盛了

未來像 定立 衆智모아

李總長基調演說、敎授7名 主題發表

李瑄根총장은 제1일(14일)에 있은 基調발표에서 開校 70주년을 맞는 본교의 당면 과제는 『지난날의 歷史속에서 교훈을 얻어 中興의 진로를 모색하는 한편 이번 세미나를통해 종합적인 發展計劃수립을 위한 자료와 지혜를 얻게되기를 바란다』고말했다。李총장은 基調발표에서 敎職員들의 제안을 主題內容別로 요약하여 기본 운영과 學術行政 및 學生指導 등으로 나누어 발표했다。

이어 학교현황보고가 總務處·敎務處·學生處및 企劃室의 순으로 3處長과 企劃室長에의해 진행되었다。

제1일에 참가한 敎授는 鄭璇(佛敎大哲學科) 崔世和(師大國敎科) 敎授의주제발표와 金龍敎授의 「物理化學」 및 「한국산 피마자유의 공업적 응용에 관한연구」 ◇李敏雄農學博士(東大農林大전임강사) ◇黃晟起博士(東大農林大강사) ◇主要論文=「人蔘의根腐病에 관한 영양생리학적 연구」 「인삼폭부병균의 영양생리학적 연구」 ◇金熙甲農學博士(국립농산물검사소 시험소 기초연구과장) ◇主要論文=「種肥가 小麥의 品質에 미치는 影響」 ◇약력=▲61년서울大農學科卒▲71년 東大大學院農學科(석사과정) 졸▲74년 東大大學院農學科(박사과정) 졸 ◇主要論文=「밀가루의 조단백함량과 생성형성에 관한 시험」 「보리류의 제분 방법에 관한 연구」 ◇崔淸農學博士(경남대농학과 교수) ◇主要論文=「Tetradecapeptide Renin 분자의 Intermediate Peptide 의 固相法에 의한 펩티드 合成에 관한 硏究」 ◇약력=▲63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화학과졸▲66년 경북대농학과 교수▲72년 캐나다 셀브르크스 유학▲75년 東大大學院農學科(박사과정) 수료 ◇主要論文=「식물로의 식품첨투에 관한 연구」 ◇略歷=▲日本中央大法學部卒▲文官高等試驗司法科合格▲立正大강사▲日本文化硏究會理事長▲현재 동경가정재판소 참여 ◇劉誠(명예經濟學博士) ◇略歷=▲日本동경대공부졸▲건설대신, 부흥부장관▲재무부장관▲행정관리청장관▲총무처장관▲행정학회장▲국회의원▲현재 자유민주당고문 ◇緖方浩(명예法學博士) ◇略歷=▲日本中央大法學部卒▲文官高等試驗司法科合格▲立正大강사▲日本文化硏究會理事長▲현재 동경가정재판소 참여 ◇劉誠(명예農學博士) ◇略歷=▲私立金陵大農學院卒業▲美「조지아·州立大農業硏究法推薦試驗場」▲美「루이지아나」州立農業硏究院硏究▲현재 中華民國行政院國軍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 비서장 ◇金藏衡(명예醫學博士) ◇略歷=▲일본체육전문학교졸▲경성여의전(現고대의대)전임강사▲한성여중고교장▲한성여중고교장▲현재 재단법인 한성학園 이사, 한성여대학장 ◇崔淸農學博士 ◇略歷=▲日本동경대농학과졸▲경성대학 조교▲한국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현재 서울농대교수 ◇鄭璇(佛敎大哲學科) 金長源(法政大經濟科)·申國柱(法政大政外科) 교수가 주제발표를 李元福(經商大經營科) 李順龍(經商大經營科) 교수가 토의에 참가했다。교수가 토의에 참가한 총장임원 16일에는 李東東(農林大農經科) 辛炳善(工科大食工科) 朴冠鎬(文理大化學科) 교수가 주제발표를 吉正大(工科大建築科) 金長好(사대국교과) 교수가 토의에 참가했으며 제2일에는 張源宗(法政大政外科) 申國柱(法政大政外科) 辛炳善(工科大食工科) 교수가 토의에 참가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本校發展計劃의 기본방향, 財政 및 施設管理政策方案등으로 同窓會側 鄭世鉉(淑大敎授) 崔世和(師大) 교수등 7명이 주제발표를 元義範(佛大) 교수등 8명이 토의에 나섰고 교수·직원 전원이참석했다。

李瑄根총장이 한바있으며 1月14日부터 16日까지 3日간엔지 金龍敎授와 李務職 주임등 學敎展세미나」를 本館敎授會室에서 열고 대학 발전의 企劃室 주최로 열린 이번 發展計劃의 기본방향 및 施設管理政策方案등을 문교부 정두영(국문과), 범상대 권의균(경영과), 농림대 윤창렬(건축과), 사범대 한시연(家敎科) 양등 이다。

박사학위 수령자는 천학 박사에 黃晟起(물교대 물리교과교수), 이학박사에 金宜洛(가톨릭의대 생화학과교수), 農學박사에 金熙甲(국립농산물검사소 시험소기초연구과장), 崔淸(영남대농학과교수), 文理學박사에 李敏雄(農林大農生科敎授) 등 3명이 영예의 박사학위를 받게되며 또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되는 교수들이 영예의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大學政殿 復元工事 6月30日 竣工

總工事費 3천6백여만원

지난 1월6일오전10시 李瑄根총장, 尹寶重이사장, 尹錫經시장및 가운데 崇敎殿에서 숭전 해제식을 이었던, 가깝게는 移轉 復元 공사를 6월30일까지 준공키로 했다。

1974년8월 李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法堂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당 건립을 추진하던 중 재정문제로 주춤했으나 이번에 서울시와 협의로써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됨 것이다。

이로써 崇敎殿은 과학관 뒷면 法雄寺자리로 이전, 개조되는데 드는 6월30일까지 1월4일부터 23일 가운데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왕목 試掘과 빙폭에서의 체험답변을 목적으로 동방에 들어간 山岳部員들은 1월4일부터 혹한과 싸우며, 격사적인 빙폭등반을 시도, 결사적인 빙폭등반을 감행, 1월14일 오후 「등」인 도장포(哲學科·4)군과 세 번드인 이동훈(경제과·4)군이 하루 1백70m를 극적으로 등반, 국내최초의 氷瀑등반에 성공함으로써 다시한번 東國山岳人의 실력을 과시했다。

이번에 정복된 토왕성빙폭은 下部1백70m、上部2백m의 두 부분으로 되어 10여년전부터 국내빙벽을 포함 韓·日合同등반대 조차도 정복등반에 실패한 難코스였다。

「스크류」(일제바퀴) 등 1백여만원어치의 장비가 동원된 이번 등반은 모든장비 국산품으로 사용됐으며, 보급 이번 등정을 위해서 劉昌福 李仁貞씨등은 起점 때 이러한 佛敎精神속에서 學問을 탐구하고 인격을 도야해 온 우리 卒業生들은 民族의 수난에 언제나 슬기롭고 용감하게 對處하는 선도적 役軍이 되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卒業生 여러분! 금년에 창립 百年을 맞는 韓末佛敎界 선지자들이 淨財를 모아 우리 東國대학교를 개교한지 70주년이되는 해입니다。의세의 소용돌이속에서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섭리된 본교는 「開校 70학년의 해」를 대학발전의 一大轉機로 삼고 작년말에는 學敎展세미나」를 本館敎授會室에서 열고 대학 발전의 企劃室 주최로 열린 이번 發展計劃의 기본방향, 財政 및 施設管理政策方案등을 문교부 정두영(국문과), 범상대 권의균(경영과), 농림대 윤창렬(건축과), 사범대 한시연(家敎科) 양등 이다。

박사학위 수령자는 천학 박사에 黃晟起(물교대 물리교과교수), 이학박사에 金宜洛(가톨릭의대 생화학과교수), 農學박사에 金熙甲(국립농산물검사소 시험소기초연구과장), 崔淸(영남대농학과교수), 文理學박사에 李敏雄(農林大農生科敎授) 등 3명이 영예의 박사학위를 받게되며 또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되는 교수들이 영예의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韓國山岳人의 꿈=

土旺城 氷瀑登程 성공

本校山岳部、國內 最初로 1백70m

지난 1월4일부터 23일까지 12명이 참가한 가운데 토왕폭 試掘과 빙폭에서의 체험답변을 목적으로 동방에 들어간 山岳部員들은 1월4일부터 혹한과 싸우며, 결사적인 빙폭등반을 시도, 결사적인 빙폭등반을 감행, 1월14일 오후 「등」인 도장포(哲學科·4)군과 세 번드인 이동훈(경제과·4)군이 하루 1백70m를 극적으로 등반, 국내최초의 氷瀑등반에 성공함으로써 다시한번 東國山岳人의 실력을 과시했다。

이번에 정복된 토왕성빙폭은 下部1백70m、上部2백m의 두 부분으로 되어 10여년전부터 국내빙벽을 포함 韓·日合同등반대 조차도 정복등반에 실패한 難코스였다。

「스크류」(일제바퀴) 등 1백여만원어치의 장비가 동원된 이번 등반은 모든장비 국산품으로 사용됐으며, 보급 이번 등정을 위해서 劉昌福 李仁貞씨등은 起점 때 이러한 佛敎精神속에서 學問을 탐구하고 인격을 도야해 온 우리 卒業生들은 民族의 수난에 언제나 슬기롭고 용감하게 對處하는 선도적 役軍이 되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卒業生 여러분! 금년에 창립 百年을 맞는 韓末佛敎界 선지자들이 淨財를 모아 우리 東國대학교를 개교한지 70주년이되는 해입니다。의세의 소용돌이속에서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섭리된 본교는 「開校 70학년의 해」를 대학발전의 一大轉機로 삼고 작년말에는 學敎展세미나」를 本館敎授會室에서 열고 대학 발전의 企劃室 주최로 열린 이번 發展計劃의 기본방향, 財政 및 施設管理政策方案등을 문교부 정두영(국문과), 범상대 권의균(경영과), 농림대 윤창렬(건축과), 사범대 한시연(家敎科) 양등 이다。

박사학위 수령자는 천학 박사에 黃晟起(물교대 물리교과교수), 이학박사에 金宜洛(가톨릭의대 생화학과교수), 農學박사에 金熙甲(국립농산물검사소 시험소기초연구과장), 崔淸(영남대농학과교수), 文理學박사에 李敏雄(農林大農生科敎授) 등 3명이 영예의 박사학위를 받게되며 또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되는 교수들이 영예의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登錄金 25%引上

23~26日限 經理課에 납부

經理課에서는 76학년도 1학기분 登錄금기간을 지난 23일부터 오는26일까지로 公告했다。

이번에 새로 확정된 등록금은 최고18만9천5백20원(工科大)에서 최저 9만9천70원(佛敎大·文理大)까지로 지난 현저의 25%(佛敎大·文理大의 일부)부터 27%까지 인상된 것이로 나타났다。

公務員 EDPS敎育機關에

本校 電子計算院 지정

電子計算院육지난 2월4일자로 문교부로부터 공무원 전자계산조직교육기관으로지정받았다。

이는공무원임용시험령제23조의2 및공무원교육훈련법제14조의규정에 의한 정식지정이다。

한편 6개부대의 봉사활동 평가결과는 3月初에 개최될 예정이다。

蔣師團長 臺灣向發

安保態勢見學目的

本校 학도호국단 蔣東洛(政外·3) 師團長은 自由中國의 國防·安保態勢를 見學하기위해 지난 21일 자 渡台, 한달간 대만지역을 견학, 중국의 현황을 보고 10일 귀교했다。

精神敎育에 重重

冬季 奉仕活動 끝나

76학년도 冬季奉仕活動이 第6部隊 E·L·F(대표 이충연·社敎2)를 중심으로 지난 1월 10일까지 봉사활동을 벌여 그 막을 내렸다。

이번 동계 봉사활동에는 11個 部隊보다는 적은규모인 6개부대 1백28명의 隊員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또한 6개부대에는 指導敎授가 각 1명씩 참가하여 직접 봉사활동을 지휘했다。

이번 동계봉사활동은 강원도 지방과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夜學, 농사기술지도, 환경개선보조사업, 교육 강좌, 장인회, 화랑훈련 등 푸른 부락민들의 정신교육에 치중했다。

奉仕隊員들은 부락민을 4반으로 구분하여, 새마을 보급 등 부락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교육과 경작기술도 보급했다。

한편 6개부대의 봉사활동 평가회는 3月初에 개최될 예정이다。

山岳部 李總長禮訪

登攀장비기증약속

한편 土旺城氷瀑 登攀에 본교를 방문한 山岳部 李總長 등 3명은 지난 2월 4일 오전 10시 金興培지도교수의 인솔아래 강원도삼척군도계 읍에이어 강원도삼척군도계 면에 이번 답험에서 대원 전원이 참여 (경제·1)군이 아깝게도 落石에 맞아 부상했다。

국내최대 수직등벽인 앙덕록 수직절의 완전답험을 목적으로 11명의 봉일답험대원은 수직절의 낙장을 조사하고 수직절의 앙덕록 수직절을 조성, 이 선발대원이 4명의 선발대원을 파견하여 앙덕록 수직절의 최초로 앙덕록 수직절을 답사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답험으로 미확정이었던 수직절의 길이가 1백15m로 확인되었다。

李瑄根總長 卒業式辭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學校法人東國學院 尹月下이사장님을 위시한 理事 여러분과 佛敎曹溪宗團의 高僧大德스님 그리고 내외귀빈과 학부모, 崔敎力동창회장님을 비롯한 여러同門을 모시고 敎職員과 在學生이 참석한 가운데 본인은 衷心으로 졸업생 여러분의 學位授與를 祝賀합니다。

학위수여에는 상장수식에는 수석졸업 韓始燕양을 비롯 각단과대학수석졸업생 7명이總長상을 받게되며 전 총학생회장 尹錫經군을 비롯한 각대학 총학생회장 및 총학생 總團간부와 특별공로자가공로표창을 받게 된다。

학위수여 및 상장수식에 수석졸업자 각단과대학별 수석졸업자는 상기와 같다。

◇李敏雄박사 ◇金宜洛박사 ◇黃晟起박사
◇野田卯一명박 ◇崔 淸 박사 ◇金熙甲박사
◇金藏衡명박 ◇劉 誠 명박 ◇緖方浩 명박

建學理念 具現하는 東國人되라

"未來志向的 哲學 定立을"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오셨읍니다。

이제 졸업생 여러분은 쓰라린 苦難의 學位를 받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國家와 民族이 위기에 處했을 때마다 나타나 민족의 커다란 精神的 지주가 되어 왔음을 想起할 때 이러한 佛敎精神속에서 學問을 탐구하고 인격을 도야해 온 우리 卒業生들은 民族의 수난에 언제나 슬기롭고 용감하게 對處하는 선도적 役軍이 되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卒業生 여러분!

금년에 창립 百年을 맞는 韓末佛敎界 선지자들이 淨財를 모아 우리 東國대학교를 개교한지 70주년이되는 해입니다。의세의 소용돌이속에서 불교정신에 입각하여 섭리된 본교는 「開校 70학년의 해」를 대학발전의 一大轉機로 삼고 작년말에는 學敎展세미나」를 本館敎授會室에서 열고 대학 발전의 企劃室 주최로 열린 이번 發展計劃의 기본방향, 財政 및 施設管理政策方案등을 문교부 정두영(국문과), 범상대 권의균(경영과), 농림대 윤창렬(건축과), 사범대 한시연(家敎科) 양등 이다。

박사학위 수령자는 천학 박사에 黃晟起(물교대 물리교과교수), 이학박사에 金宜洛(가톨릭의대 생화학과교수), 農學박사에 金熙甲(국립농산물검사소 시험소기초연구과장), 崔淸(영남대농학과교수), 文理學박사에 李敏雄(農林大農生科敎授) 등 3명이 영예의 박사학위를 받게되며 또한 이날 학위수여식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되는 교수들이 영예의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博士學位 수령자

◇黃晟起哲學博士(東大佛敎大敎授)=「圓測의 唯識學說硏究」 △약력=▲43년 東化專門學校 佛敎科卒▲61년 본대 학원 박사학위과정수료 △著書=「불교학 개론」 「소승불교의 수행론」 「한국불교재건론」 ◇金宜洛理學博士(국립대 생화학 화학교실 조교수)=量子力學理論에 의한 有機黃 Halide物의 反應機構와 反應性에 關한 硏究」 △약력=▲67년東國大大學院卒▲70년 카톨릭의대 화학교실 전임강사▲72現 大工科大 高工科강사▲75 東大大學院農學科(박사과정) 수료 ◇主要論文=「식물로의 식품첨투에 관한 연구」 ◇略歷=▲日本동경대농학과졸▲경북대농학과 조교▲경북대농학과 전임강사▲경북대농학과 조교수▲현재 서울농대 조교수 ◇著書=「물리화학」 △약력=▲64년 東大文理大生物科졸▲68년 同大學院농용생물학과졸▲72년 東大農林大강사 ▲△主要論文=「人蔘의根腐病에 관한 연구」 「인삼폭부병균의 영양생리학적 연구」 「인삼폭부병균의 영양생리학적 연구」 ◇金熙甲農學博士(국립농산물검사소 시험소 기초연구과장) ◇主要論文=「種肥가 小麥의 品質에 미치는 影響」 ◇약력=▲61년서울大農學科卒▲71년 東大大學院農學科(석사과정) 졸▲74년 東大大學院農學科(박사과정) 졸 ◇主要論文=「밀가루의 조단백함량과 생성형성에 관한 시험」 「보리류의 제분 방법에 관한 연구」 ◇崔淸農學博士(경남대농학과 교수) ◇主要論文=「Tetradecapeptide Renin 분자의 Intermediate Peptide 의 固相法에 의한 펩티드 合成에 관한 硏究」 ◇약력=▲63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화학과졸▲66년 경북대농학과 교수▲72년 캐나다 셀브르크스 유학▲75년 東大大學院農學科(박사과정) 수료 ◇主要論文=「식물로의 식품첨투에 관한 연구」 ◇略歷=▲日本동경대농학과졸▲경북대농학과 조교▲경북대농학과 전임강사▲경북대농학과 조교수▲현재 서울농대 조교수 ◇著書=「물리화학」 △약력=▲64년 東大文理大生物科졸▲68년 同大學院농용생물학과졸▲72년 東大農林大강사 ▲△主要論文=「人蔘의根腐病에 관한 영양생리학적 연구」 「인삼폭부병균의 영양생리학적 연구」 ◇金熙甲農學博士(국립농산물검사소 시험소 기초연구과장) ◇主要論文=「種肥가 小麥의 品質에 미치는 影響」 ◇약력=▲61년서울大農學科卒▲71년 東大大學院農學科(석사과정) 졸▲74년 東大大學院農學科(박사과정) 졸 ◇主要論文=「밀가루의 조단백함량과 생성형성에 관한 시험」 「보리류의 제분 방법에 관한 연구」 ◇崔淸農學博士(경남대농학과 교수) ◇主要論文=「Tetradecapeptide Renin 분자의 Intermediate Peptide 의 固相法에 의한 펩티드 合成에 관한 硏究」 ◇약력=▲63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화학과졸▲66년 경북대농학과 교수▲72년 캐나다 셀브르크스 유학▲75년 東大大學院農學科(박사과정) 수료 ◇主要論文=「식물로의 식품첨투에 관한 연구」 ◇略歷=▲日本동경대농학과졸▲경북대농학과 조교▲경북대농학과 전임강사▲경북대농학과 조교수▲현재 서울농대 조교수 ◇著書=「물리화학」

※名博學位授與者 略歷

◇野田卯一(명예經濟學博士)

보리수

흘로 가라

가련한분들에도달해있다。

卒業이란 말이 「始作」이란 말과 同意語로 사용되듯 생소한 世界에서 맞이할 것을 처음 「始作」하는 것이다。이제까지 먼 도한 祖師에게 의지하는 것이다。무엇이든지 求하는 것이 있다면 삶아왔던 지지부분은 홀연·모두 고통이므로 일없는것만 같지 못하다」

대한다。만약 부처님에게 매달려 求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부처님에게 얽매임되듯 영원히 그 용서되듯 생소한 世界에서 맞이할 것을 처음 「始作」하려 求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영원히 있을수 없다。실로 卒業은 卒業式이 있어 卒業이 있는것이 아니라。

<李琨寧>

今週一言

人前爲惡,
以暮滅之。
是照世間,
如月雲消。

사람이 먼저는 악업을 짓더라도 뒤에와서 선으로 이것을 멸하면 그는 능히 이세상을 비추리—달이 구름에서 나온 것처럼。

<法句經>

巷談

(西山大師, 禪家龜鑑)

부처님이나 祖師는 우리를 救援에 이르게 하는 龜鑑이 되는 行蹟을 남기신 분들이다。이 분들이야 말로 우리의 師表가 되는 분들이다。그러나 그 위대한 부처님마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쳤을 뿐 그에게 길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분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아니 기대고 의존할 대상이라면 그러한 것은 원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단정짓는다。그러는 한 깨달음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수 없다。

(農學博士·中華民國行政院國寧退除役官兵輔導委員會 비서장) 씨는 韓·日間 韓·中間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金義衡(명예철학박사·漢城女大學長)교수는 韓國女性敎育과 국민체육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名譽학위를 각각 수령하게 되었다。

1976년도 신입생 교복 제정 양복점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급 신사복 전문—	—고급 신사복 전문—	—고급 신사복 전문—	—고급 신사복 전문—
한미라사	창미라사	신미양복점	을지라사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4번지 (파고다공원정문옆)별표전축건물 ⑭4846 ⑭8343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파고다아케트 105호 ⑭6030 ⑬6725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신신백화점연쇄가(분수대옆) ⑭8778 ⑫8565	서울 중구 을지로6가 21—31 (을지로6가 계림극장건너편) ㉕5595

社說

卒業은 社會的 誕生

오늘 學士學位를 받는 여러 學生들에게 우선 祝賀의 뜻을 표한다. 여러분이 오늘의 榮光을 얻게 된것은 지난 4年동안 여러분들 自身이 眞理探究의 熱을 가지고 寒夜 勉學한데대한 보답이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大學에서 여러분을 入學시켜 敎授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이 아름다운 學園에서 師弟간에 多情한 對話를 나누면서 人格 向上을 위해 誠心껏 指導하여 준 덕분임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여러분을 大學에 까지 進學시키면서 어려운 學費를 부담하는등 子女敎育을 위해 血肉의 사랑을 가지고 뒷바라지를 해주신 父母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될것이다. 人生에 있어서 여러가지 「出生」을 생각할수 있다. 우리를 父母님이 낳아 주신것은 肉體的인 出生이며, 이것을 人生에 있어서 「第二의 誕生」이라 한다면, 大學을 卒業하는 것은 人間이 받아야할 所定의 敎育課程을 모두 마치고 社會로 進出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이들 테면 「第二」의 出生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第三」의 出生에 있어서는 아무리 榮門勢家에서 出生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外的인 與件에 불과한 것이므로 本人의 能力과는 別個의 것이라 할것이다. 이에 反하여 「第二」의 出生은 本人이 能動的으로 勉學하여 얻는 榮光의 月桂冠이라 할 것이므로 보다 價値가 있다고 할 것이다. 肉體的인 出生이란 누구나 다 누릴수 있는 自然的인 영광에 불과하지만 社會的인 第二의 탄생은 누구에게나 均等하게 配分되는 것이 아니며 知行一致와 格物致知의 굳은 정신으로 宇宙의 神秘를 깨달으며, 社會의 現實을 改革하려고 구준히 노력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特權이라할 것이다.

出生은 母體부터 幼兒가 이땅 하는것이며, 그 결과 個人의 獨立이 시작되듯이 이제 社會的으로 탄생한 새學士인 여러분은 學園을 떠나 社會로 進出하게 되며 敎授님들의 後見에서 벗어나 여러분이 4年간 공부하며 뿌려낸 배움의 동산은 社會로부터 격려된 「極樂」과 같은 동산이었다고 할 것이다. 지금 새로 만든 學士帽를 쓰고 사회로 그 첫발을 내 디디려는 여러분 앞에는 疾風怒濤와 같은 社會의 어려움이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4年間 大學에서 배운 知識과 단련한 身體를 밑천으로 하고 勇氣를 갖고 突進한다면 그 怒濤를 헤치고 勝利의 希望塔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은 한 평생 父母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學校은을 나서는 卒業生은 한평생 母校와 스승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여러분이 금후 社會에 나가서 각자 선택한분야에서 성공하게 된다면, 그것은바로 모교를 빛내게 될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은 社會에서 모교의 발전을 지켜보며 학우나 모교를 위해 힘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금년도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특히 치하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우리大學에 재학하는 동안에 維新體制를 하원에 定着시키는 국가적사명을 계기로 大學도 국가적사명을 切感하고 學園秩序를 확립하는 轉換點을 찾게 되었으며, 이어 大學 學生團의 편성을 통해 大學은 混亂속에서 秩序를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은 이번 졸업하는 卒業生들의 큰 공보라 할 것이며 後輩들에게 본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립하여 더욱 우리는 치하 하지 않을 수 없다.

大學을 가리켜 象牙塔이라 한다. 그곳에서는 眞理探究를 使命으로 하는만큼 역시 理論을 배우는 것이 첫째 課業으로 알고있다. 그리고 卒業生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되면 大學에서 배운 理論을 現實에 적용하는 일이 중요한 일부가될 것이다. 「學問을 위한 學問」의 시대는 옛날로 돌지 오래이다. 여러분은 大學에서 배운 知識을 실사회에서 응용함으로써 이나라의 번영에 이바지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들었던 東國의 캠퍼스를 떠나게 될 것이다. 高學府의 교육을 마친 최고의 지성인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배우는 일이 영원히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않된다. 人生에 있어서 배움이란 卒業에 있어서 되풀이된다. 한 학기가 끝나면 한 학기가 시작되고, 또 한 학기가 끝나면 또 한학기가 시작된다. 한 번의 시험이 시작되고, 그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시작되면, 일 주일은 끝나고, 이러한 수많은 시작과 끝이 되풀이 되고 있어 간다.

이렇게 같은 패턴의 생활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마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같다. 이 강물 위에 수많은 가랑잎들이 물살에 휩쓸려 솟구쳐 나왔다 가라앉았다하며 유유히 흐른다. 거기에는 등전만한 작은 잎파리가 있는가하면,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시멘가지만한 큰것도 있다. 가지가지 크기의 그 잎파리들이 경주나 하듯이 앞을 다투어 흐르면서, 어떤 것은 물위에 솟아올라다가 맑장 가라앉아버리기도 하고, 어떤것은 장시간 떠내려가다간 물속이 깊숙히 사라져버리고 만다. 한 잎이 가라앉으면 한잎을 솟아오르고, 한 잎이 솟아오르면 한 잎은 가라앉는다. 솟아오르고 가라앉고 하면서 끝없이 흐른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로 흐르는 이 강물을 졸업식을 연달아 지켜보는 우리 선생들의 눈과 가슴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다면 그의 눈에 이 많은 가랑잎들이 어떻게보일까. 그 가랑잎들이 속수쳐 나왔다 가라앉다가 하는것이 과연 어떻게 생각이 될까.

그것은 물결위에 맴돌다가 꺼져버리는 무수한 물거품이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착년에도 또 그 전해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또 그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해에도, 있을 것이며, 아득한 과거로부터 아득한 미래에 걸쳐 되풀이 되는 현상이다.

졸업식과 입학식만이 아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만 해도 수 없는 형사의 시작과 끝이 연이어 흐른 수없이 되풀이된다. 한 학기가 끝나면 한 학기가 시작되고, 또 한 학기가 끝나면 또 한학기가 시작된다. 한 번의 시험이 시작되고, 그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시작되면, 일 주일은 끝나고, 이러한 수많은 시작과 끝이 되풀이 되고 있어 간다.

이렇게 같은 패턴의 생활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노라면 우리 인간세계에서 일어나는 變轉속에 때묻혀가는 수많은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인간세계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시작되어 끝나고 끝나면 시작되어 일정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크게는 어떤 王朝의 始終을 볼수있고 작게는 우리개인의 生과 死를 볼수 있다. 더 작게는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오는 一分一秒의 시작과 끝을 볼 수 있다. 이 많은 시작과 끝을 유유히 흐르는 강물위에서 明滅하는 물거품이라고 한다면 그 강물은 우리 인간세계에서 일어나는 變轉無常의 수많은 시작과 끝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간자체에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리나 그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식이 없다. 흘러갈 뿐이다. 2월25일 졸업식이 있었던 것도 인간이 있음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인간의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있다. 始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없다. 오늘을 보내고 내일을 맞는다. 이들이 가고 새날이 오는 것이다. 생각할수가 없다는것이다. 경우는 始終이 없는 것이다. 無限한 시간의 어느 一點을 잡아 始點하였다면 그 始點은 有限한 것이므로, 無限한 시간속에 그 有限性을 드러내고 만때가 오기 때문이다.

종교적인 사색이 깊은 인도인은 인간의 이러한 有限性이 해탈하는 시간의 초월속에 起源하는 것으로 믿었다. 그들은 인간존재를 「영원한 시간의 흐름속에 불과한 하나의 포말에 불과한 것」으로 표현한다. 그리하여 끝임없이 自然의 無限性을 동경한다. 無限하고 普遍적인 것을 추구하여, 구원도 서지않는 空想과 관연한 구원도 서지않는 空想을 추구하여 간다. 이러한 사상 경향은 종교적인 현실에게 있어 가져온 특징적인 태도의 쇠퇴를 가져온 원인이다. 자라난 종교사상이요. 따라서 그것 영향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소극적인 태도는 과감히 모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보는 印度적 思惟속에 있어 종교적인 始終의 개념에 대해서도 새 인간의 인간존재의 장조하였다. 始와 終의 개념에 대해서도 새로운 屈面을 개척하고 제신단 보는 것이나 그 개념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관념에 대해 불교는 否定의 뜻을 표시한 없이 없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라는 三世의 구별만은 인정하고 있다. 시간은 실제하지 않되 三世를 흐름의 구별에 대해서는 비슷한 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解脫의 三世를 想定할 수 있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唯識學派에서는 시간과 三世의 구별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범위에 있어 시간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三世의 구별은 인간의 習慣的 思惟의 産物이다. 그러한 시간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다. 「始」는 「終」을 전제로 하고 있다. 始와 終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始는 終

平均競爭率 3·4對1

首席合格에 李琦雨君(法政大 法學科)

新入生 合格者發表

1976학년도 신입생 1천 2백60명을 선발하는 입학試驗에서 法政大 法學科를 지망한 李琦雨(京畿高)君이 首席合格했다. 지난 5·6 양일간에걸쳐 실시된 이번 입시에서 43개학과 募集員 1천 2백60명에 4천1백75명이 응시해 평균 3·4대1의 경쟁율을 보인 학과는 經商大 貿易科로 35명募集에 2백89명이 응시해 8·2대1의 높은 경쟁을 보였다.

한편 師範大學에 신설된 敎育學科와 國史敎育科는 각각 2·2대1, 3·1대1의 경쟁율을 보였으며, 工經科는 2부의 電算科와 工經科는 각 30명 모집에 79명, 62명이 응시해 2·6대1, 1·1대1의 경쟁을 나타냈다.

한편 새 東國人을 맞아들일 입학식은 3월 4일(木) 오전10시 本校體育館에서 있을 예정이며, 4·5·6 3일간에 걸쳐 學生部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8일부터는 정상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金校首席=法政大 法學科 李琦雨(京畿高)君 ▲佛敎大 文理大 ▲佛敎大 2·4대1 ▲文理大 2·3대1 ▲法政大 3·1대1 ▲經商大 5·4대1 ▲農林大 2·6대1 ▲工科 2·1대1 ▲師範大 5·4대1 ▲敎育學科 2·3대1 ▲國史敎育科 3·1대1 ▲文理大 3·4대1 ▲法政大 4·6대1 ▲經營科 李錫稙(大光高) ▲農林大 3·0대1 ▲安允成(京畿高) ▲工科 高永展(檢定考試) 3·3대1 ▲文理大 李鉉(居昌高) ▲法政大 7·4대1 ▲經商大 5·4대1 ▲經營科 李錫稙(大光高) ▲農林大 3·0대1 ▲安允成(京畿高) ▲工科 李鉉(居昌高) ▲文理大 柳泰美利(梨花女高)

※1976年度 入試志願 現況

대학	학과	정원	지원자	경쟁율	커트라인
佛敎大	불교	20	62	3.1	314.4
	철학	20	50	2.5	305.8
	인문	20	48	2.4	300.3
	미술	30	86	2.8	287.7
	가정	20	15	0.8	241.0
文理大	국문	30	130	4.3	360.0
	영어	30	105	3.5	356.0
	사연	20	96	4.8	346.8
	영문	20	62	3.1	294.0
	독일	30	94	3.1	303.1
	불문	30	63	2.1	266.0
	사학	30	66	2.2	288.0
	지리	30	96	3.2	309.9
法政大	법정	25	125	5.0	357.1
	행정	25	126	5.0	340.3
	경제	25	118	4.7	352.6
	경영	30	160	5.3	341.4
經商大	세무	35	149	4.2	353.6
	경영	35	289	8.2	362.8
	무역	40	213	5.3	353.9
	경제	40	135	3.4	333.5
農大	농학	25	80	3.2	296.0
	농업	25	60	2.4	303.9
	축산	30	92	3.1	314.4
	임업	20	59	3.1	298.9
	농경	40	102	2.5	318.4
工大	건축	40	113	2.8	300.9
	토목	30	95	2.7	269.8
	전기	30	80	2.7	266.1
	전자	40	112	2.8	286.4
	기계	30	98	3.3	295.5
	공업	35	102	2.9	291.2
	공경	25	63	2.5	297.7
師範大	교육	30	66	2.2	318.7
	교교	30	95	3.1	335.5
	교교	30	75	2.5	321.9
	교교	40	123	3.1	317.4
	교교	30	142	3.7	358.4
	교교	25	63	2.5	288.7
	교교	30	49	1.6	254.2
	가교	30	82	2.7	304.4
2大部	전공	30	79	2.6	306.1
	산경	30	62	2.1	252.8
총계		1,260	4,175	3.4	

◇총점602점 만점, 단 미술과, 영영과는 실기총점 752점 만점, 체교과는 실기포함 762점 만점

◇李廷植교수

◇金鎭福교수

◇安鎭烈 同門

李廷植교수등 3名 2期 維政會議員에 당선

제2기 維政會議會議員으로 본교 法政大 李廷植교수와 金鎭福 며우교수가추천되고 제2기 安鎭烈(行政大學院) 등은 재추천되어 지난 2월16일 열린統一主體國民會議에서 당선되었다.

한편 趙炳厚(總力安保國民協議會京畿支部長) 등은 예비추천 5명으로 당선되었다.

이번 維政會議에 본교에서 政治學博士學位를 받은바 있으며, 현재까지 13년여를 본교에서 在職해왔다.

李교수는 본교 政治意識狀況硏究」로 74년도 韓國人의 政治學博士學位를 받은바 있으며, 현재까지 13년여를 본교에서 在職해왔다.

李교수는 본교 政治學科 學科와 大學院을 졸업하고 서울신문·京郷新聞 논설위원 직을 거쳐 KBS解說委員 대우교수로 재직중이었다.

學校發展에 協力 강조

李總長·護國團간부 간담

李瑄根 총장은 지난 1월 6일 市內 미성회관에서 호국단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교 70周年을 맞아 學校發展계획에 전폭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鄭炳武 학생처장을 비롯 호국단 간부 10명과 午餐을 같이하는 자리에서 李총장은 개교 70주년을 맞아 교발전계획이 이미 部分的으로 실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李총장은 본교교 敎育學科 國史敎育科는 각각 2·2대1, 3·1대1의 경쟁율을 보였으며, 工經科는 2부의 電算科와 工經科는 각 30명 모집에 79명, 62명이 응시해 2·6대1, 1·1대1의 경쟁을 나타냈다.

한편 새 東國人을 맞아들일 입학식은 3월 4일(木) 오전10시 本校體育館에서 있을 예정이며, 4·5·6 3일간에 걸쳐 學生部 전반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8일부터는 정상수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金校首席=法政大 法學科 李琦雨(京畿高)君 ▲佛敎大 文理大 ▲佛敎大 2·4대1 ▲文理大 2·3대1 ▲法政大 3·1대1 ▲經商大 5·4대1 ▲農林大 2·6대1 ▲工科 2·1대1 ▲師範大 5·4대1 ▲敎育學科 2·3대1 ▲國史敎育科 3·1대1 ▲文理大 3·4대1 ▲法政大 4·6대1 ▲經營科 李錫稙(大光高) ▲農林大 3·0대1 ▲安允成(京畿高) ▲工科 李鉉(居昌高) ▲文理大 柳泰美利(梨花女高)

名譽委員長에 裵龍煥(體敎)君 피선

본교 1·2學軍團 자치군단을 自治會 J건물에서 가졌다. 지난해 1월 25일 실시된 부표에서 裵龍煥(體敎·3)군은 총 56표를 얻어 명예위원장에 피선되었다.

이날 선출된 명예위원장 裵龍煥(體敎·3)군은 다음과같다. ▲명예위원장=裵龍煥(體敎·3) ▲인사참모=박윤호(食工·3) ▲정보참모=이웅용(體敎·3) ▲교육참모=김진수(行政·3) ▲군수참모=윤관욱(化工·3)

護國團幹部들 一線將兵慰問

지난 2월1일 학도호국단간부일행은 장병도 최전선의 포병부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문공연을 가졌다.

이날 호국단간부 30여명은 오후 2시경 부대에 도착, 기타 2개, 대구공 4개, 서적 2百여권, 엽서 2천5백매 운동기구 20여점을 위문품을 전달하고 부대장 노재음중령으로부터 감사패와 싸인 비 이어 80여개중대 임시중대 특설된 구내식당에서 두대가 많은 장병들을 격려했다.

◇首席卒業者 韓始燕양(敎育科)

首席卒業의 辯

진실한 自我發見이 큰成果

헷세의 「데미안」등에 共感

언제부터인가 나는 否定的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人間이 되고자 노력하게되었다. 그때서인지 나는열코 지나간 날들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않는다. 물론 흘러 가버린 시간들이 모두가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이지만 이것들을 당연한 일들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이 어서도 모든 날들이 어느 한 순간이라도 놓치기 아까운 모두가 소중한 시간들인 것 같다. 헛되이 보내버린시간들 가운데서도 나는항상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그것을 곧바로 실천하고 위한 지나간날들에 대한 反省이었다.

나는 大學 4년 동안 많은 경험을 배웠고 지금의 그 어느때보다도 부럭 어른이 되어 버린 것같다. 먼모르고 순진하게 지냈던 프레쉬맨 시절은 大學生活에 대한 適應期였던 것같다. 대학 1학년을 마무리짓는 겨울방학이 되어서야 나는 비로소 本質的으로 사람답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眞實한 자유의 감격이었다.

이도는 나는 그동안 읽었던 문학서적들과 다시 가까와진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나도 삶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얻고 싶었던 때문인것 같다. 헷세의 「데미안」과 투이제는 고등학교 때 막연한 감명을 주었으며 이 무렵에 전혀 다른 그것이 되어서 읽게 되었다. 그리서 그 혜리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 신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하였는지 그것도 바로 모두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肯定的인 이제 면으로만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生活을 하고싶다.

「삶」에 대한 의미를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나는 회미하게나마 내가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지 무엇인가 되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冬眠의 2학년 겨울방학이 지남과 동시에 나는 모든것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때부터 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으며 특히 신입 佛敎에 몸담고 있는 한분을 알게되어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부문에 있어 많은것을 배웠다. 學問的인 것보다는 그 다지 큰進展을 못하였지만 그분은 적어도 學問을 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은 모든것을 肯定的인 면으로만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生活을 하고싶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否定的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추구하는 人間이 되고자 노력하게되었다. 그때서인지 나는열코 지나간 날들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않는다. 물론 흘러 가버린 시간들이 모두가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이지만 이것들을 당연한 일들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이 어서도 모든 날들이 어느 한 순간이라도 놓치기 아까운 모두가 소중한 시간들인 것 같다. 헛되이 보내버린시간들 가운데서도 나는항상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그것을 곧바로 실천하고 위한 지나간날들에 대한 反省이었다.

나는 大學 4년 동안 많은 경험을 배웠고 지금의 그 어느때보다도 부럭 어른이 되어 버린 것같다. 먼모르고 순진하게 지냈던 프레쉬맨 시절은 大學生活에 대한 適應期였던 것같다. 대학 1학년을 마무리짓는 겨울방학이 되어서야 나는 비로소 本質的으로 사람답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眞實한 자유의 감격이었다.

이도는 나는 그동안 읽었던 문학서적들과 다시 가까와진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나도 삶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얻고 싶었던 때문인것 같다. 헷세의 「데미안」과 투이제는 고등학교 때 막연한 감명을 주었으며 이 무렵에 전혀 다른 그것이 되어서 읽게 되었다. 그리서 그 혜리씨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그 신의 존재를 어떻게 확신하였는지 그것도 바로 모두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肯定的인 이제 면으로만 생각하며 항상 감사하는 生活을 하고싶다.

卒業生 就業처 알아둬

75學年度 卒業者 就業현황

本校의 75년도의 卒業生數를 각 단과대별로 살펴보면 佛敎大 36名, 文理大 1백70명, 法政大 78名, 經商大 79명, 農林大 61名, 工科大 1백73명, 師範大 1백50명으로 총 7백47명인데 이는 작년보다 53명이 더 늘어난수이다.

금년 2月초 本校 學生處에서 집계한 취업자수는 총 4백67명(ROTC및 軍入隊者제외)으로 나타나 취업대상 졸업의 95% 이상이 취업한 셈이다.

이러한 취업률은 74년도의 85%에 비해 상당한 증가를 보인 것으로 재학생의 앞으로의 就業問題에 밝은 전망을 던져 주게 한다.

졸업생의 就業傾向을 분석해보면 예년과 다름없이 一般企業體, 敎員, 國營企業體순으로 임반기업체, 1백62명, 敎員 97명, 國營企業體 31명등이다.

74년도와 비교해 볼 때 이와 같은 경향은 순위상으로는 별다른 변동은 없으나 금융기관 진출자가 지난 해의 54명에 비해 20여명이나 급격히 증가들었다. 금융기관 진출자의 현저한 감소는 銀行의 신규채용사정이 대폭의 경우 35%나 줄어든데에다가 금융계 저성장신에 따라 人力管理의 엄중으로 취업대상자만이 으로나타나고 있다.

또한 就業外에 大學院進學者가 60명, ROTC 1백3명, 一般軍入隊者가 1백70명으로 대부분 취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졸업예정자 79명중 ROTC 4명과 一般軍入隊者 12명을 제외한 취업대상자 63명전원이 進學者 포함) 이 취업한 것으로 알려진 經商大의 경우 10명이 추천거래 처로 신탁은행등을 비롯한 금융계로 진출했고 44명이 三星物産, 現代建設, 三養食品등의 入社試驗 및 中小企業廳에 응시, 이외 24명은 취업실적은 없지만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一般企業·敎職·國營企業體順 卒業生 95%線 就業

「우선就職」보다 「待遇」에 더 左右

○……經濟不況의 회복 기미와 中東을 비롯, 海外進出이활발한 建設業界의 好景氣 등으로 昨年 9月末까지만해도 부진했던 본교의 就業成績이 전자 회복세를 보여 75年度下半期에 들어서는 卒業生의 95%線이 就業을 마친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社員公開 채용하고있는 1百여 루요 企業體의 75年度 社員채용규모가 지난해보다 20%정도늘어난 것을 봐도 잘 알수있다. 한편 금년도 大學卒業者들은 취직처를 고를때 「우선就職」보다는 「待遇」에 따라 더욱우리는 여유(?)를 보인다는데 지금부터 그 現況을 살펴본다. 〈編輯室注〉

○……한편 우수학생 추천의뢰는 상당히줄어든 편이나 작년9월 실시된 제8회 무역사시험에무역과생 12명(전교합격자수) 이합격하여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또한 2년마다 시행되는 자격시험에도 9명이 합격했다. 공직진출이 많았으며 일반기업체 진출이 뒤따랐으며 다양한부업협력체를 나타냈다. 그러나 사법고시에는 3명의 응모자가 합격했을뿐 재학생의 고시합격의 경우에 있어 행정고시의경우에는 단한명의 합격자도 없어 더욱 많은 분발이 요청된다. 이에반해 제24기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는 작년 2명이 합격을 나타내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우선 교원진용은 사법고시에서 金鳳男군(社敎科)의 수석을 비롯, 경기, 전북, 경남지구에서 수석을 차지함으로서 우수한 합격율을 보였다.

특히 서울지구·순위고사 국어과의 경우, 모집인원 11명의 과반수가 넘는 6명이 本校 國文科 生이 차지하였다.

地區別 합격자 수는 서울 13명, 경기 25명, 충북 3명, 충남 5명, 전북 4명, 전남 1명, 경북 11명, 경남 7명, 강원 10명, 부산 2명이로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佛敎大는 졸업자 36명중 ROTC 2명, 軍入隊 12명, 大學院進學 3명, 敎職 4명, 公務員 5명등으로 진출했다.

美術科의 경우 敎職을 비롯, 문화재관리국에 5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그리고 工科의 경우 敎職 4명, 공업진흥청 1명, 기업체 8명이 취업했고, 일반기업체에 10명, 농협등 금융기관에 3명이 入社했으며, 敎員, 공무원및 進學者 수는 엇비슷한 비율이었다. 소위 「인기과」로 불린 국문과 영어과 사연과 불문과 등은 졸업생 수는 엇비슷한 비율이었으나 금융기관 진출자는

合찬 大學生活

한점 부끄럼 없도록

南相任

그리하여 敗北감 아이는 學校에 들어간다 그리해서 그는 學校를 나온다. 그곳에서 그는 때때로 詩를 쓴다. —R·끄르노〈詩法을 위하여〉

卒業에 당하여 이 詩句가 떠오름은 무슨 연유에서 學校에로 도피하고 그러면서도 숨리하지 못하고 學校를 되돌아 「詩」를 쓰는 자신을 볼때 모든 것—세월, 生活, 사랑, 無知—의 덧없음을 새삼 느낀다.

有口無言이란 말이 있다. 罪지은 자에게 힐난하는 문귀로 사용되어진 句이다. 그러나 罪人이다. 입은 있으되 할말이 없다. 學校에 들어간 나는 자신에게나 社會에게나 할 말이 없는 나는 罪人이다. 그렇다. 이말을 뱉음에 앞서 나는 이말을 앞세우고 싶다.

〈學時節〉

그 무슨 몽딴지 같은 潮流를 타고 불어온 「미」는 불과 더불어 나의 「大學生活」을 시작 되었다. 「T·E 슈트롬」의 〈大學時節〉〈적렬〉〈춘〉과 〈순〉과 더불어 낭만적인 대학생활은 아니었으되 나는 언제나 우리시대의 고민은 〈精神不在〉라고 되고 다녔다. 우리세대 특의유 고민따위로 얼마를 지냈지만 나는 끝 형비어버린 나 자신만의 〈청신고갈〉을 메우기 위해 뛰어 다녔다. 나는 어디로 뛰었던가? 靈義와 肉과 도서관을 있는 좁은(?) 범위에서 뛰기도 했고 음악과 영화와 그의 적탐이 고민을 잊을수 있는 요소요소로 나는뛰어 다녔던것 같다. 생각하면 나의 대학시절은 이차다. 어둠이 깔린 교정에서부터 〈황전문〉을 나서기 까지 모두가 숨이 차다. 지금은 내 숨찬입김이 서렸을 몇몇 건물이 모습을 잠추었지만 그곳의 새 입김을 서려놓은 교정의 다른 건물들을 찾두고가 조금은 안심이된다. 그러나 나는고민한다.

언제까지고 계속되야만 내가 인간이라는 인정을 받을수 있을 그 고민은 졸업식이 마들하는 그순간부터 더욱 나를 조여 온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부끄럼 없도록〉우리는 고민해야한다. 우리 시대의 위기는 유례없는 정신고갈이라고 고민해야한다.

우리의 일부는 패배로 인하여 학교를 떠나고 재배로 인하여 학교를 나서는 우리의 일부는〈우리시대의문제해결〉이다. 그곳에서 그는 학교에로 도피하고 그러면서도 숨리하지 못하고 學校를 되돌아 「詩」를 쓰는 자신을 볼때 모든 것—세월, 生活, 사랑, 無知—의 덧없음을 새삼 느낀다.

有口無言이란 말이 있다. 罪지은 자에게 힐난하는 문귀로 사용되어진 句이다. 그러나 罪人이다. 입은 있으되 할말이 없다. 學校에 들어간 나는 자신에게나 社會에게나 할 말이 없는 나는 罪人이다. 그렇다. 이말을 뱉음에 앞서 나는 이말을 앞세우고 싶다.

〈入